

퀀틴전시 플랜

[다음주 시장은?] 반도체 쏠림 완화, 디레버리징 이후 KOSPI 흐름



[투자전략팀]

이경민 / Strateg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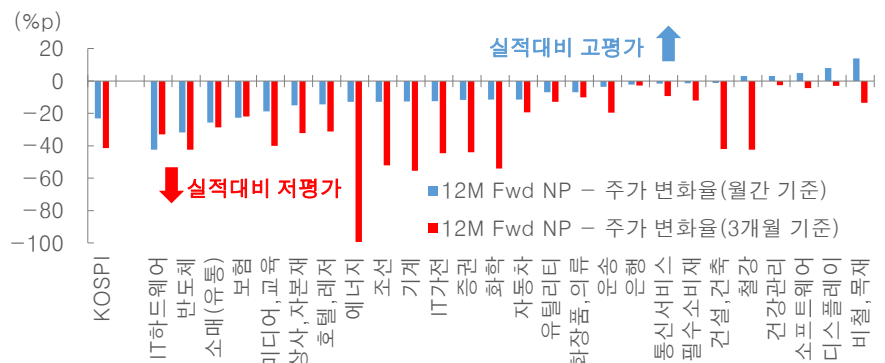
kyoungmin.lee@daishin.com

주간 전망

미국 7월 CPI를 통해 국제 유가 반등의 영향과 통화정책 컨센서스 변화 체크

- 7월 31일 KOSPI가 +18.5% 급반등 이후 KOSPI 약세 반전.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자리. 그 동안 반복되어 왔던 월초 효과 영향. 매월 첫 거래일 금투협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을 공시. 상승 국면에서는 시가총액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펀드의 리밸런싱 수급이 유입되지만, 최근 약세에 따른 비중 축소 매물 출회. 7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통주 시가총액 비중은 각각 27.08%, 24.08%로 6월 28.24%, 24.96%에서 하락
- 샌디스크의 실적 발표도 변동성 확대 요인. 26년 4분기 회계연도 매출 89.7억달러, 데이터센터 매출 29.8억\$로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다음 분기 매출 가이드를 103~108억\$로 제시하며 예상치를 하회. 실망 매물 출회
- 다만 반도체 업종 쏠림 현상은 완화. 레버리지 ETF 출시 전 반도체 Top2의 시총 비중은 50.2%였지만, 6월 25일 58.9%로 고점을 기록한 후 8월 6일 기준 46.3%로 하락. 반도체 Top2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의 급감. 일평균 거래대금이 기본예탁금 상향 전 7.5조원에서 8월 6일 0.6조원으로 레벨다운. 레버리지 거래로 수급 쏠림이 완화되며 변동성도 진정세를 보일 것. 신용유자 잔고도 6월 24일 37.5조원 고점에서 8월 5일 27.6조원으로 하락. 향후 반대매매와 기계적 매도 압력도 축소될 가능성 높음
- 반도체 수급 쏠림과 변동성 진정 이후 반도체가 다시금 주도주로서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실적대비 저평가, 소외주들의 동반 상승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
- 1) 올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쏠림 현상은 5월 19일 ~ 6월 22일뿐. 당시 KOSPI(+25%)를 Outperform한 업종은 IT하드웨어(86.8%), 반도체(46.3%) 뿐. 24개 업종 Underperform했고, 20개 업종이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 하지만, 월간 수익률 순위를 보면 1월 자동차, 반도체, 상사/자본재, 비철소재, 증권, 2차전지, 2월 IT하드웨어, 건설, 자동차, 증권, 반도체, 에너지, 디스플레이, 4월 IT하드웨어, 기계, IT가전, 반도체, 철강, 상사/자본재. 반도체가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시기별로 다양한 업종이 동반 강세를 기록
- 2) 금융투자자의 매매패턴도 변화. 5월, 6월 금융투자자는 반도체, IT하드웨어, 상사/자본재(지주사)를 집중 매수했지만, 7월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24개 업종 순매수
- 3) 비반도체 업종의 수출 호조, 실적 개선 가시화도 긍정적. 반도체 제외한 수출(달러기준)은 전년대비 25년 4Q +0.3%, 26년 1Q +12.1%, 2Q +20.3%, 전분기대비 25년 4Q -1.8%, 26년 1Q +4.5%, 2Q +14.1%로 모멘텀 강화. 분기별, 연간 영업이익 전망도 18 ~ 21개 업종 상향 조정 중. 비반도체 업종의 수출/실적 모멘텀 강화 뚜렷
- 다음주 미국 물가지표를 통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컨센서스 변화 재점검. 7월 CPI와 근원 CPI는 전년 대비 각각 +3.5%, +2.5%로 전월과 유사하거나 소폭 낮아질 전망. 미국과 이란의 재충돌 및 협상 과정에서 국제유가가 반등했던 만큼, 에너지별 물가 압력이 근원 및 서비스 물가로 확산되는지가 핵심. 물가 압력이 강하게 확인될 경우 추가 긴축 가능성이 확대되며 미국채 금리와 달러 상방 압력으로 작용해 경계할 필요

월간, 3개월 기준 실적대비 저평가 업종 주목 : IT하드웨어, 반도체, 소매(유통) 등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대신증권 리서치 소속 **퀀트, 전략, 시장** 애널리스트의 현재 시장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담아낸 자료입니다. 매일 이슈에 대한 분석과 시장 리뷰, 확인해야 할 데이터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KOSPI, 업종별 수익률 추이

주요 지수	현재가 (p)	등락율(%)						
		1D	1W	1M	3M	6M	12M	YTD
KOSPI	6,296	-4.6	12.6	-21.8	-14.7	23.7	96.9	49.4
에너지	6,937	-3.6	8.9	-8.0	-14.3	22.7	68.7	45.6
화학	4,072	1.0	13.8	-4.0	-37.3	-14.4	0.3	-9.0
비철,목재	6,446	10.0	30.3	10.4	-28.4	-23.5	20.6	-8.9
철강	2,200	0.7	7.3	-0.2	-36.1	-12.4	1.6	1.4
건설,건축	2,290	1.8	27.2	-0.7	-24.9	23.4	45.3	50.6
기계	10,826	-2.8	30.8	-11.3	-40.5	3.2	41.1	20.8
조선	8,171	-0.4	11.0	-7.1	-26.5	-13.7	3.4	-6.3
상사,자본재	5,581	-1.2	17.3	-14.8	-15.7	27.5	105.5	60.7
운송	1,907	1.7	8.7	4.0	2.7	2.5	5.0	8.2
자동차	14,581	0.2	13.0	-13.2	-14.3	-6.8	58.8	23.0
화장품,의류	6,087	5.2	8.7	5.0	-0.1	14.6	12.5	24.1
호텔,레저	1,599	1.7	4.8	-7.2	-23.0	-33.5	-30.4	-30.8
미디어,교육	505	0.7	7.2	-9.0	-19.8	-38.8	-26.6	-36.0
소매(유통)	2,539	1.5	3.7	-23.3	-10.0	5.4	30.5	26.0
필수소비재	7,579	3.1	0.0	5.6	-1.2	5.2	6.2	11.3
건강관리	9,686	2.4	4.9	7.1	-2.4	-13.9	10.5	-8.5
은행	3,440	1.8	4.1	1.4	4.5	8.0	38.5	28.5
증권	2,731	-0.3	9.2	-13.6	-36.2	-9.4	34.7	21.6
보험	15,168	0.5	5.8	-13.4	8.5	30.9	67.4	46.0
소프트웨어	6,646	-0.2	10.8	7.8	-2.6	-8.8	-4.8	-7.2
IT하드웨어	3,804	-8.6	37.7	-31.3	8.2	156.2	324.3	177.7
반도체	42,945	-8.4	12.6	-31.7	-10.8	57.7	308.8	106.7
IT가전	2,578	-0.2	15.9	-6.1	-28.1	17.2	55.5	39.2
디스플레이	565	-2.2	11.7	-11.9	-27.4	-17.6	-16.5	-19.8
통신서비스	471	-0.4	7.9	3.1	-5.6	11.2	23.9	28.3
유틸리티	1,125	0.8	9.2	-5.4	-23.1	-34.9	-11.2	-17.1

주: Top 5, Bottom 5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OSPI, 업종별 YTD 수익률



글로벌 밸류에이션 테이블

권역/국가	P/E			P/B			ROE(%)			12M fwd EPS Revision		
	2026년	2027년	12M fwd	2026년	2027년	12M fwd	2026년	2027년	12M fwd	1W	1M	속도
전세계	18.4	15.8	16.6	3.5	3.1	3.2	18.9	19.5	19.3	1.5	2.7	▲
선진국	20.0	17.5	18.3	3.8	3.4	3.5	18.9	19.4	19.3	1.5	2.3	▲
신흥국	11.2	9.1	9.9	2.1	1.8	1.9	18.6	19.7	19.3	0.9	3.9	
북미	21.6	18.6	19.4	4.9	4.3	4.5	22.7	23.0	23.0	0.7	1.6	▲
유럽	15.8	14.3	14.9	2.4	2.2	2.3	15.2	15.7	15.5	0.1	0.4	
퍼시픽	17.3	15.6	16.5	1.9	1.8	1.9	11.2	11.6	11.4	-0.2	-0.1	
라틴	9.8	9.5	9.6	2.0	1.8	1.9	20.0	18.9	19.3	0.4	1.1	▲
EM 유럽	10.9	9.3	9.9	1.5	1.4	1.4	14.2	14.7	14.6	0.2	-1.7	▽
EM 아시아	11.4	9.0	9.9	2.2	1.8	2.0	18.9	20.3	19.7	1.1	5.0	
선진 시장												
S&P 500	21.5	18.4	19.2	5.0	4.3	4.5	23.3	23.5	23.6	0.7	1.8	▲
NASDAQ	26.4	20.8	22.1	6.5	5.3	5.6	24.6	25.5	25.5	1.0	1.1	▲
프랑스	15.4	14.1	14.6	2.0	1.9	2.0	13.2	13.6	13.4	0.4	0.3	▲
독일	15.9	13.7	14.4	1.8	1.7	1.8	11.5	12.5	12.2	-0.1	0.0	
영국	13.2	12.4	12.7	2.3	2.1	2.2	17.3	17.3	17.3	0.8	0.0	▽
일본	16.8	14.8	16.0	1.8	1.7	1.8	11.0	11.6	11.2	0.4	1.0	▲
신흥 시장												
중국	11.6	10.1	10.7	1.3	1.2	1.3	11.4	12.0	11.7	-0.2	-0.1	
인도	21.7	18.3	20.4	3.0	2.7	2.9	14.0	14.8	14.3	0.0	-0.3	▽
한국	5.8	4.2	4.8	1.8	1.3	1.5	31.4	31.5	31.5	0.4	2.5	
대만	21.4	16.5	18.2	5.0	4.1	4.4	23.2	24.7	24.1	1.7	7.0	
브라질	8.4	8.2	8.3	1.7	1.6	1.7	20.8	19.4	20.0	1.3	0.6	▲

기준일: 2026.08.05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밸류에이션 테이블(Z-Score, ○: 2년 평균 기준, ●: 5년 평균 기준)

권역/국가	PE	Z-Score									
		-2이하	-2 ~ -1.5	-1.5 ~ -1	-1 ~ -0.5	-0.5 ~ 0	0 ~ 0.5	0.5 ~ 1	1 ~ 1.5	1.5 ~ 2	2이상
전세계	16.6	○				●					
선진국	18.3			○			●				
신흥국	9.9	○ ●									
북미	19.4	○				●					
유럽	14.9							○	●		
퍼시픽	16.5							○	●		
라틴	9.6						○	●			
EM 유럽	9.9									○	●
EM 아시아	9.9	○ ●									
S&P 500	19.2	○				●					
NASDAQ	22.1	○	●								
프랑스	14.6						○	●			
독일	14.4						○		●		
영국	12.7						○		●		
일본	16.0							○	●		
중국	10.7					○ ●					
인도	20.4			○	●						
한국	4.8	○ ●									
대만	18.2						○		●		
브라질	8.3					○		●			

기준일: 2026.08.05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주요국 EPS Growth(% YoY)

권역/국가		2026년	2027년	2028년	27-28년 평균
권역(대)	전세계	31.0	16.3	12.9	14.6
	선진국	24.7	14.6	13.3	14.0
	신흥국	67.1	23.7	11.4	17.5
권역(소)	북미	28.3	16.2	14.5	15.4
	유럽	18.2	10.5	10.7	10.6
	퍼시픽	14.7	11.3	9.6	10.5
	라틴	29.5	3.7	7.8	5.8
	EM 유럽	23.3	17.6	12.0	14.8
	EM 아시아	81.5	27.2	12.0	19.6
선진국	S&P 500	29.4	16.6	14.8	15.7
	NASDAQ	51.2	27.8	21.9	24.8
	프랑스	20.8	9.4	9.5	9.4
	독일	7.9	16.1	13.9	15.0
	영국	19.1	7.2	8.0	7.6
	일본	15.9	13.1	11.3	12.2
신흥국	중국	13.4	14.6	13.1	13.9
	인도	10.2	18.2	13.7	15.9
	한국	315.6	36.1	5.6	20.9
	유럽	18.2	10.5	10.7	10.6
	브라질	38.7	2.1	8.5	5.3

기준일: 2026.08.05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1 항 5 호 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